

OC의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가 이취임 감사예배를 14일 오후 4시 30분에 미러클포인트교회에서 드렸다. ©기독교일보

14일 OC교협 이취임 감사예배 신임 회장에 박재만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가 이취임 감사예배를 14일 오후 4시 30분에 미러클포인트교회에서 성대히 드렸다. 이날 직전회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가 이임, 심임회장에 박재만 목사(미러클포인트교회)가 취임, 신임이사장에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취임했다.

심상은 목사는 '창의적 리더가 되라'(민수기 13:30-33)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창의적 리더는 모두가 안된다고 할 때, 행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 모두가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외치는 창의적 리더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창의적 리더는 이것을 즐기고 진리로 인내욕을 먹기도 하지만 짜릿한 길을 걷는 사람이다. 신임회장 등 모든 임원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계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박재만 목사는 "지금 힘들어하는 교회를 손잡아 끌어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감당할만한 것을 주신 것이고, 이 마음으로 감사하게 사역할 것이다. 성령님의 도움에 힘입어 240여 교회를 세우는 데 앞으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사장 취임사를 한 민경엽 목사는 "전이사장 심원규 목사 뒤만 따라가고 싶고, 박

재만 목사의 성공적인 사역을 보고 응원하고 싶다. 임원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다 보면 이게 연합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믿는다"고 했다. 공로패 증정(이임회장 심상은 목사, 이임이사장 신원규 목사) 및 취임패(박재만 목사, 민경엽 목사), 추대패 증정(김영수 장로, 후원이사 최용운 장로, 김수연 대표)이 있었으며 이사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날 후원이사장에 김영수 장로(은혜한인교회)가 연임, 후원이사에 최용운 장로(남가주연합장로교회), 김수연 대표(씨드교회)가 세워졌다. 축사를 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교회들이 올해 다시 일어서고 연합해서 지역 부흥과 세계 선교에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축사한 영킴 의원(연방의원 의원, 40지구)은 "지역사회를 섬길뿐 아니라 이끌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지금까지 거주 시의회에 이어 연방의원까지 오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상으로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축사했으며, 조봉남 장로(OC한인회장), 이영선 목사(GBC미주복음방송)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이영규 목사(순복음북미총회 증경총회장)의 인도로 신임임원단을 위한 축복기도의 시간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토마스 맵 기자

나이지리아, 美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3년 연속 제외돼 논란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계속되는 폭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 국가 목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4일(현지 시간) "종교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용인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의 연례 목록을 발표했다.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이슬람 테러단체 보고하람이 '특별우려단체'로 지정되었지만, 3년 연속으로 CPC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이지리아를

이 명단에 추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해에 나이지리아를 제외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종교자유 글로벌 자문 위원인 손 넬슨은 5일 성명에서 나이지리아가 CPC 명단에서 누락된 것을 비난하며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나이지리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넬슨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 번 더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 침해로 인한 특별우려국가로 지정하지 않는 데 대해 우리는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미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자행되는 노골적인 종교적

자유 침해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6면에서 계속



'나이지리아의 레베카'의 한 장면. 잿더미가 된 집의 잔해에서 건진 성경을 들고 있는 레베카. ©한국 순교자의 소리

美 바이든 대통령, 종교 자유의 날 선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을 '종교자유 날'(Religious Freedom Day)로 선포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 같이 선포하며 "우리는 전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하고 실천하며 가르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사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과가상가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SHARING BREAD FOR SOUL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누십시오
 목사님! 성도님!
 2024년 사순절은 나눔의 영성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은 나눔으로 나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 사순절 개요 시작일: 2월 14일(재의 수요일) ~ 종료일: 3월 28일(성 금요일)
개인 전화(323-578-7933), 카톡(ID:Chanpan1), 혹은 이메일(chap1207@hotmail.com)로 참가를 통보하고 매일 한 끼 금식을 실천하며 금식비를 월드쉐어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회 참가의사를 월드쉐어 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프로그램 안내를 하시고, 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며 금식비를 월드쉐어를 통해 선교지로 보내면 됩니다.

월드쉐어 USA:수리남, 아이티, 도미니카 극빈아동 자료와 전쟁지역 아동 정보 제공하고 후원금 전달합니다.

“부흥 협의회, 강단 교류, 부흥회 이끌 목회자 양성이 목표”

대표회장 취임식 21일(주일) 4시 멜리데 교회서, 부흥회는 최고의 메시지를 듣는 기회 제공하는 것

한국 기독교 부흥 협의회 LA지부(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상임회장 진건호 목사)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가 1월 21일 오후 4시 멜리데 교회에서 개최된다.

한국 기독교 부흥 협의회(55대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는 고(故) 신현균, 조용기 목사 등이 교파를 초월해 설립한, 한국교회 최대 부흥사 단체로 지난 50여년 간 한국 부흥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 올해 이 협회의 LA지부가 설립되면서, 멜리데 교회의 고귀남 목사가 LA지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다.

고 목사는 지금으로부터 1979년 인천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해 23년 8개월 만에 출석교인 1천 7백 명인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2005년 미국으로 건너와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지 18년 만에 출석교인 440명에 이르는 중형교회로 만들었다.

한국에서 부흥사로 잔뼈가 굵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부흥사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녔고,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의 주 강사로 섬겼다. 사단법인 민족 복음화 운동 협의회(신현균 목사 설립)를 본부장으로 섬기기도 했다.

지난 1월 12일(금) 멜리데 교회에서 그를 만나 이번 취임의 계기와 계획, 비전에 대해 들어 보았다. 그는 우선, 이 단체의 타이틀, <한국 기독교 부흥 협의회>가 오늘의 시대에 맞지 않다는 말로 입을 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한 번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고,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하곤 했다. 요즘은 봄 가을은 그만두고 몇 년이 되어도 부흥회를 안 한다. 현대의 삶에는 이 타이틀 자체도 맞지 않다. 한국 기독교 부흥 협의회라는 말이 20세기 때 얘기이다.”

이전에도 다른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대표회장으로 추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 신념상의 이유로 고사해왔다. 폐 한 쪽을 잃었고, 체장의 암세포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8배 정도 높아 거동이 자유롭지 않을뿐 아니라, 각 교단별 나눠주기식, 감투 씌우기식 운영방식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단체를 성경에 입각한 협회로 만들길 원한다.

그는 이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의도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

그는 첫번째 목표로 강단 교류를 꼽았다. “한 가지는 강단 교류이다. 부흥회가 많이 사라진 지금, 최소한 강단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미국 내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한국에서 목회자가 오면 강대상에 세우는데 미국에서 목사가 한국에 나가시면 이들을 강단에 안 세운다는 것. 그래서 7년 전 교단 연합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미국의 한인 교회 목사님 20명이 한국에 나

가셨는데 그분들 모두 강대상에 다 설 수 있게 했다. 그와 같이 한국과 뉴욕을 비롯해 미국 7개 주 교회들과 대화하며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그가 이 같이 강단교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한 명의 목사에게 적어도 한 개의 탁월한 설교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10편의 탁

회를 개척해서 18년 만에 현재 저희 교회 제적이 440명이고 출석교인이 220명이 되었다. 18년 만에 일궈놓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전수하고 싶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 날까지 하고 싶다.”

“세번째는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이다. 45



기독교 부흥 협의회 LA지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고귀남 목사는 협회를 이끌 세 가지 목표로 강단교류, 목회자 훈련, 미자립 교회 지원을 꼽았다.

월한 설교, 혹은 1천 편의 위대한 메시지를 지닌 목사님도 계시지만, 타주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각 목사님들은 그분이 가장 자신 있는 최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성도들이 듣게 된다.

“왜 강단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나면 타주에 가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잘하는, 18번, 그 목사님은 특 처도 그 말이 나오는 66권 중에 최고의 설교가 한 편은 있다. 10편, 천 편을 갖고 계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적어도 한 편은 있다. 강단 교류를 하면 그 목사님의 최고의 메시지를 그 성도들이 듣게 된다. 그래서 강단 교류는 매우 필요하다. 욕심 같아서는 강단 교류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을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다.”

두번째는 목회자 훈련이다. 타 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이끈다면 적어도 한 목사님에게 10편의 집회를 이끌 수 있는 10개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고귀남 목사는 이를 위해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부흥회 훈련을 위한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부흥회를 하러 간다면 10편의 집회에서 전할 10개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제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협회의 목사님들 모셔서, 부흥회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눈여겨봐서 훈련시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빛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45년 담임목회하고 수백 개 교회에서 부흥회한 경험을 토대로 전수해 주고 싶다.”

“제가 한국에서 인천에서 천막 치고 목회했다. 23년 8개월 만에 천 7백 명 출석교인 교회를 만들었다. 미국 와서 학연, 지연, 단 한명도 없이 저희 집사람과 딸을 데리고 교

년간 목회하면서 지난 해 재정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않았다. 그해 현금은 그해에 다 쓴다. 1월부터 절약해서 살아오니 12월 중순, 말이 되면 교회 재정이 남는다. 멜리데 교회는 그 남은 돈 몇 만불을 전부 어려운 교회에 나눠주는 일을 해왔다. 2022년에는 20만불을 20개 개척교회에 1만불씩 후원했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차량도 바꿔드리고, 우물도 파고, 집도 지어드리는데 썼다. 80명의 유치원 아이들 신발부터 연필까지 필요한 학용품들과 생활용품들을 제공했다. 아프리카 신학생을 키운다면, 그들의 학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학비뿐 아니라 그들 가족의 생활비까지 다 대주며 학생 한 명을 키웠다. 그렇게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장학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일까지 구제의 손길이 미친다.”

“미자립 교회를 돕고 싶다. 왜 도와야 하나? 제가 일을 다 할 수 없다.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에게 재정을 도와줘서 그 분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미자립교회를 도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역하게 한다면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것과 같다.”

이 세가지 목표를 두고 이 협회를 이끌어 나가길 원하는 고귀남 목사는 이 협회가 LA를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로 성장해 나가길,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단체가 되길 소망한다.

고 귀남 목사는 “사람은 죽으면 다 나눠준다. 자기 것을 떠난다. 제가 가져갈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 저의 철학은 죽으면 흘려보낼 게 아니라, 내 눈이 깜빡일 때 흘려보내자

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는 손해이고 바보 같은 플랜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자들이다. 이들이 그 고마움에 얼마나 열심히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인들이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부흥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덕적 윤리적 상태에 교인들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고 교인의 영적 현 주소가 옮겨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산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하다. 담임목사가 그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18번지 목사를 청빙해서 이 분의 18편을 양떼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게 부흥회이다.”

“담임 목사가 외부 부흥 강사가 와서 훈련을 치면, 위축된다. 강사님은 자기 인생 중에 가장 잘하는 설교, 자기 18편 말씀을 한다. 당신이 목사면 그렇게 안 하겠는가.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가수인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부르지 못하는 것 부르겠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교인들이 천장이 무너지는 은혜를 받아도 담임목사와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다.”

LA지부 취임감사예배는 1월 21일(주일) 오후 4시 멜리데 교회에서 개최되며 저녁 식사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주디 한 기자 멜리데 교회 주소: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문의: 310-706-7721(진건호 목사)

→ 2면 기사 <美 바이든 대통령, 종교자유의 날 선포>에 이어서

특히 “억압적인 정부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은 신앙을 이유로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는 일부 국가의 기독교인 등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혐오스러운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해 1억 달러(약 1,328억) 이상을 지원했고, 대량 학살을 포함한 종교 탄압을 피해 탈출한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점을 상기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또한 “종종 종교적 소수자 집단 학살과 관련된 인권 침해인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반입을 거부하고 종교 박해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행위자와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수출을 통제해 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한다”며 “우리의 신앙과 신념이 분열을 치유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며 종교인인든 비종교인인든 모든 사람이 존중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24년
새롭게 출발하는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서사라 목사
연락처 T.(213)574-9400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미주한인의날 121주년, 발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서 첫 이민 역사 시작,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가 주최한 제121주년 미주한인의날 및 제21회 선포 축하식이 13일, 새누리교회에서 개최됐다.

김영구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디 추, 영길 연방 하원의원,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무장관, 김영완 LA 총영사, 최석호 전 의원, 한인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주 한인 이민 121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남가주 지역 다민족 지도자들은 한인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미주한인의날은 1903년 1월 13일 최초의 한인 이민자가 미국에 첫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고, 미주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헌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됐다. 인천에서 출발한 한국인 첫 이민자들은 1902년 12월 22일 호놀룰루 입항을 허가 받아, 이듬해인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발을 내디뎠다.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인 이



제121주년 미주한인의날 및 제21회 선포 축하식이 13일, 새누리교회에서 개최됐다. ©기독일보

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005년 12월 미국 하원과 상원이 '미주한인의 날 지정'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전국 각 주에서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말씀을 따라 떠나 분리되었더라'(히브리서 11:8-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강평 목사(서울기독대학교)는 "한국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이래 많은 이

들이 미국의 정치계,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예배드린 결과로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믿고 순종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계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까지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미주한인재단LA 이병만 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곳곳에서 분열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한인사회가 하나되어야 한다"라면서 "지난해 발간된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16명의 업적을 조명한 책 '길 위에 길을 내다'가 한국의 세종도서에서 우수 도서로 뽑혀 한국의 공공기관에 배포되고 있다. 내년이 이 책 영문판을 낼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온지 121년 되었고 미국 연방에 승인받으려 19년이 되었다. 오늘을 계기로 미국 사회 핵심 구성원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날 행사 2부 순서에서는 버꾸춤, 평양검무, 쌍검대무(코리안 댄스), 브라질, 베트남, 방글라데시 팀의 문화 공연 등이 선보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강선영 류태평무, 향발무, KAMA USA 등의 이어진 공연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 말미에는 미국 다국적위원회 연대 협정서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홀로아리랑 합창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러빙워십 "예수아(YESHUA) 콘서트, 부흥의 희망을 보았다"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간증 비기독교인 대상 콘서트 기획 중

작년 12월 17일, 22일과 23일 LA와 OC를 찬양의 열기로 뜨겁게 달구었던 제이어스와 연합 콘서트 예수아(YESHUA)를 마친 러빙워십은 남가주의 희망을 보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5일 기독일보 사무실을 찾은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는 예수아(YESHUA) 콘서트를 찾았던 관객들의 반응과 소감, 또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나누었다.

이 콘서트를 하나님께 올리 드리기까지 수차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 기도의 열매로 이루어진 예수아(YESHUA) 콘서트에는 총 4천 3백여 명이 왔고, 그 가운데 15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함께 하며, 남가주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번 집회는 여러 교회들의 도움과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러빙워십은 각 교회들을 찾아 다니며, 이 모임을 하는 이유, 마음을 전달했다. 많은 목회자들, 청년부 사역자들이 '남가주에 이런 연합 집회가 필요했다'며, 청년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이 집회를 지지했다. 교회의 청년부가 줄어들고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사역이 위축되고 있는 이 때, 복음의 불씨를 붙이길 소망했다.

"콘서트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그 날이 자신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사진을 함께 찍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방관자처럼 앉아 있다가 차츰 마음을 열고 예배자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간증도 들었다. 10대 손녀에게 예수를 전해 주려고 3대가 같이 온 경우도 있었다."

조셉 리 목사는, "언제 또 이런 집회를 여실거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찬양하니, 딱딱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다"고 덧붙였다.

예수아(YESHUA) 콘서트, 대형 K-CCM 콘서트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것이 러빙워십 사역의 전부는 아니다. 러빙워십은 시작의 자리를 잊지 않는다. 의지할 거라고는 예수의 이름뿐이었던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예수아콘서트도 가능했다. 이들은 처음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에 세리토스에 있는 미국교회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조셉 리 목사의 또 하나의 사역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사역이다. 이번 콘서트의 모든 과정이 하나도 쉽게 된 것이 없다는 그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확신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움직였다.

그리고 2020년, 코비드로 교회들이 문이 닫힐 때 시작한 멀티미디어 사역을 계속할 계획이다. 매일 러빙워십이 제작한 'Jesus Christ is my savior'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중파로 송출한다.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러빙워십은 이번 콘서트를 좀 더 확장해, 크리스천이 아닌 이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 문화 콘서트를 기획 중이다. 예수아(YESHUA) 콘서트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예수아콘서트를 추진하고, 현실화하기까지 과정은 영적 전쟁과 같았다. 콘서트를 앞두고, 이들은 "낙심과 두려움, 패배감,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과 싸워야 했다. 그 과정에서 바탕이 된 것은 결국, 기도였다.

"먼저, 기도를 쌓았다. 기도하고, 확신이 들면 움직였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움직이

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채워 주신다. 2022년 11월 부터, 이번 콘서트를 1년 전부터 준비했다. 봄 내내 기도했다.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극장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구했다. 그러다 극장도 처음에는 한 개, 나중에는 세 개로 늘어났다. 이 콘서트를 준비하며 재정과 사람이 모일까라는 이슈가 컸다. 다 안된다고 하였고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거고 사람이 오지 않을 거란 얘기를 들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티켓에 나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그 암담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뚫고 앞드리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움직임이 시작했다. 러빙워십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였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12월 17일 LA노보 극장에서 열린 예수아(YESHUA) 콘서트. ©기독일보





2024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일정
원서 접수 마감 : 1월 19일(금) 까지
개강 : 2월 5일(월) 부터

입학문의
☎ 입학처 (백옥경 과장) : 714)525-0088
✉ admissions@gm.edu
🌐 MORE INFORMATION : www.gm.edu
📍 1645 W.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입학절차

1. 원서접수
www.gm.edu에서 Apply메뉴 클릭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서류 제출
3.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진행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찾았다! 내가 꿈꾸던 대학
그레임미션대학교

학사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철학 (PhD ICS)
- 교육학철학 (PhD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CS)

교육인가기관



입학특전

- 유학생 1-20 발행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수여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유자 (FSA)
-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 미국 우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해 가득하길”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가 2024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2일부터 6일까지 열었다. 6일 새벽예배에서 윤대혁 목사는 하박국 3:16-18절을 본문을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하나님 이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빼고는 감사가 존재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는 감사의 타이밍을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해야 한다는 분이 있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감동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감사의 시기는 하나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본문의 하박국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사방팔방에 적들이 가득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 싸울 힘이 없는 하박국의 상태인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온 땅이 폐허가 되어서 온 세상에 없는 것 투성이었다. 우리가 살면서



윤대혁 목사(사랑의빛 선교교회)는 1월 6일 새벽예배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설교했다.

이것 저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들이다. 없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오늘 없기 때문에 내일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것이 하박국의 상황”이라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없

다는 것은 슬프고 괴로움이 되고 미래를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하박국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할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

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을 찬송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대혁 목사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라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떠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불렀지만 그동안 모든 것이 아까워서 근심하다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묻는다. 그 말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없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원한다”면서 “감사함으로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을 마쳤다. 토마스 멩 기자

DMC, 교회 음향 클래스 3개월 완성

DMC 3개월 완성 교회 음향 클래스

- 현직 프로 사운드 엔지니어의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강의
- 교회 사역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강의

강의 커리큘럼

강의 주제	강의 내용
1. 음향의 기본이해	▶ 음향시스템 기초구성, 피드백 컨트롤
2. 장비의 세팅과 매칭	▶ 앰프 매칭, Gain Structure, Level 설정
3. 이펙터 적용과 실제	▶ 이펙터의 종류와 사용법, 노이즈 컨트롤
4. 성가대, 찬양팀 마이킹	▶ 마이크 세팅, EQ 세팅(주파수 특성 이해)
5. 설교와 예배 스트리밍	▶ 주파수 어젠자 활용법, 영상에매 세팅
6. 콘솔 컨트롤	▶ 디지털 콘솔 운영방법, 입체 사운드 믹싱

교회를 섬기는 DMC의 미디어 서비스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1:1 서비스 엔지니어 없이 본인이 직접 소리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시간 15분)

2. 교회 방문 프로 엔지니어의 맞춤형 솔루션! (2시간)

3. Solo/MSL 대용량 하나로 대용량 오디오 장비도 관리 가능합니다. (1시간)

4. 상담 및 교육 비전 미디어 장비 제대로 활용하기! (1시간)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교회와 예배에서 음향과 영상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출석이 제한되거나 온라인 예배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음향과 영상은 현대 교회에서 성도에게 예배에 대한 경험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교회를 섬기는 DMC에서 최병철 교수(한국음악 Studio협회 회장 역임, 종신대 교회 음향 강의를)를 강사로 세워 오는 2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2주 과정으로 강의를 한다. 장소는 12440 Firestone Blvd, Suite 1014, Norwalk, CA 90650이다.

강의는 음향의 기본이해, 장비의 세팅과 매칭, 이펙터 적용과 실제, 성가대, 찬양팀 마이킹, 설교와 예배 스트리밍, 콘솔 컨트롤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 등록은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www.dreammediaco.org 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월드미션대와 DSLIM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부모교육 진행

1/24(수) 오전 11시 월드미션대

월드미션대학교와 DSLIM Foundation(디에스림 파운데이션)은 1월 24일(수) 오전 11시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가 건강한 가정의 주체로 기능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 날 프로그램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의 승혜경 교수가 '장애인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란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펼치며,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목사의 축사와 더불어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가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가 지역사회

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설명회는 1월 24일(수)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5층 스마트 강의실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zoom (ID 2133881000)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DSLIM Foundation은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한 고 임동선 목사님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세워진 재단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사전 접수: <https://forms.gle/74dvcoV4EaS66JV47> 문의: 213-388-1000



승혜경 교수(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아버지 밤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 중보기도 연합 2월 기도대회

주제: **미스바로 모이라!** (삼상 7:5)

남가주 중보기도 연합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미국과 조국 그리고 이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기도동역자를 찾습니다!

일시 : 2024년 2월 7일(수) 10시
장소 :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예고
4월 4일(수) 은혜한인교회
6월 5일(수) 감사한인교회

-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운동 지도위원 : 한기홍 목사, 구봉주 목사, 박성규 목사, 민경엽 목사, 심상은 목사, 신승훈 목사, 국윤권 목사, 김우준 목사
-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운동 운영위원장: 강 순영 목사, 사무총장: 강 태광 목사

문의 : 강 순영 목사(310-995-3936), 강 태광 목사(323-578-7933), 김 미영 전도사(주님의 영광교회/213-700-3816)



센터메디컬그룹 최초 직영 병원

센터메디컬 클리닉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



부인과 질환



예방 접종

환자 1명당 최대 1시간의 섬세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조이스리, M.D.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과학, 창조주에 대한 풍부한 증거 제공

美 제15차 변증학 학술대회 20개 주 대학·교회서 참여

1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NOBS)와 리벨대학(Levell College)에서 개최된 남침례회(SBC) 제15차 연례 변증학 학술대회에 20개 주의 대학과 교회에서 465명이 참여했다.

미국 뱀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15명의 주요 연사와 100개 이상의 분과 세션은 뇌 과학, 양자 물리학, 현대 영화, 반기독교 신념 체계, 부활에 대한 증거, 트랜스휴머니즘, 성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제시했다.

연사로 제이미 듀 NOBS 총장, 데이비드 칼슨 곤자고대학교 교수, 로버트 보우먼 종교연구소(IRS) 교수, 팀 맥그루 웨스턴 미시간대학교 교수, 크레이크 헤이즌 바이올라대학교 교수, 자나 하먼(C.S. 루이스 연구소), 제임스 워커(워치맨 펠로십), 세인 프루이트 북미선교위원회(NAMB)의 국립 차세대 이사 등이 참여했다.

NOBS 신학 교수 겸 이사인 로버트 스튜어트는 개회사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언급하며, 변증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좋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경고했다.

스튜어트는 “여러분이 복음 전도, 변증, 그리고 일반적인 사역에서 효과적인 정도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정도, 즉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 정도와 일맥상통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오클라호마대학교 물리학 교수이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CERN(유럽 핵연구 기구)



2024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와 리벨대학에서 열린 제15차 연례 변증학 학술대회에서, 이 대회의 감독인 로버트 스튜어트 교수가 연설을 하고 있다. ©뱀티스트프레스

연구소의 실험 입자 물리학 연구원 마이클 슈트라우스는 우주에 관해 알려진 과학이 창조주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슈트라우스는 세 가지 증거가 창조주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는 시작이 있었고, 빅뱅이 있었다. 우주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정밀하게 조정돼 있으며, 지구는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행성 중에서 희귀하다”고 설명했다.

슈트라우스는 신자들이 지동설과 같은 과학적 발견을 더디 받아들이던 과거의 실수를 지적하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증거가 보여주는 대로 사물에 대한 생각을 기꺼이 바꾸는 진리의 추구

자가 돼야 한다. 기독교인은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찾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NOBS 총장인 제이미 듀는 창세기 1장 26~31절을 인용해 “인류의 이익을 위해 현대 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듀 총장은 “우리의 삶은 ‘현대 디지털 기술’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것이 삶에 녹아든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AI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물열차”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기술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에 의해 자존감이 오

르내리는 등의 ‘현실 혼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듀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이전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하며, 순응적이고, 중독성이 있다. 본질상 지배적인 측면이 있다”며 “AI가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인류의 깊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진정한 인간관계가 절실한 문화 속에서 성육신적인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라”고 권면했다.

뇌 영상 과학자이자 영국 옥스퍼드 변증학 센터의 겸임 강사인 샤론 더크스는 “AI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식을 갖는 것과 다르다”면서, 더욱 시급한 질문은 “인간이 AI를 어떻게 사용 혹은 남용할 것인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크스는 “AI가 결국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실제로 기술과 생물학보다는 철학과 세계관에 더 달려 있다. 이는 인간이 기계라는 신념에서 비롯된다”며 “과학은 어떤 경험을 하는 동안 뇌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그 경험 중에 느낀 것을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은 인간이 고유하게 사고하고, 이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기능하며, 그분께 책임을 다하며,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크스는 “AI 기술이 아무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교해져도, 이러한 ‘하나님 형상의 특성’은 인간 삶의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다... AI 시대에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연합기도회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와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가 연합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연합기도회”를 3월 3일(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이며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CGI의 총재인이 영훈 목사가 강사로 서 말씀을 전하며 기도회를 이끈다.

주최측은, “2024년도에는 40여개 국에서 선거가 계획되어 있어 정치 현상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024년도가 가장 불확실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4개월에 접어들고 있고, 한국에서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 대선과 연방의원, 각 지방의 시의원 선거도 11월에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 밖에 없다”고 집회 취지를 전했다. 문의: 213-663-2228

→ 1면 기사 <나이지리아, 美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이어서

또한 “미 국무부가 나이지리아의 심각한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니 의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은 지난달 국무부에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가로 지정하고, 나이지리아 및 차드호 지역에 대한 특사 임명을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한 인권 단체 중 하나이다.

이 서한은 아프리카 국가를 휩쓸고 있는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며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신앙으로 인해 살해된 기독교인 중 90%가 나이지리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서한에는 2022년 초부터 가톨릭 신부 100명이 납치되었고, 그중 20명이 살해된 통계를 인용했다. 또한 2009년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1만 7천 개의 기독교 교회가 불탔으며, 그중 상당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채로 불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한은 기독교인에 대한 범죄 외에도,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이 “문제적인 수준의 무관심”이라며 “이러한 공격들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하는 데에서 꾸준히 실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 옹호 단체들은 정부가 박해를 승인한 사례로, 기독교인에 대한 신성모독법 집행을 언급했다.

서한은 “이러한 법률에는 위반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초법적 학살에 일상적인 면책권을 부여해왔다”며 “작년에는 학생 데보라 에마누엘 야쿠부가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후 폭도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그녀의 살인에 반대한 소코토의 가톨릭 주교 및 기독교 여성 로다 자타우에 대한 심각한 살해 위협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한이 의회 기록에 등재된 지 2주 후, 그리고 국무부가 CPC 목록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 나이지리아에서는 성탄절 전 토요일부터 휴일까지 이전 공격으로 16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학살당했으며, 주로 기독교인 마을의 수백 채의 주택이 불에 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나이지리아를 CPC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목록에서 누락시킨 데 대해 공분을 표했다.

4일 발표된 성명에서 USCIRF 의장 아브

라함 쿠퍼와 부의장 프레드릭 데이비는 “국무부가 우리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의회 청문회를 요구했다”며 “국무부가 자체 보고서와 성명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USCIRF 지도부는 이번 크리스마스 학살을 “나이지리아 종교 공동체에 대한 치명적인 폭력의 최신 사례이며 국무부도 이를 규탄한 바 있다”며 “대부분의 위원들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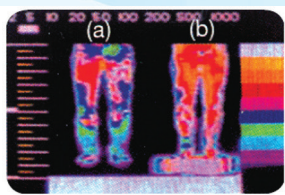
미 국무부는 USCIRF의 권고를 받아들여 CPC 목록에 버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시켰지만, 권고한 다른 5개 국가 - 아프가니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베트남 - 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는 (CPC에) 지정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하여 국무부는 지배적인 이슬람 테러 단체인 탈레반을 특별우려단체로 지정했다. 김유진 기자

피로방지 매트

70%이상 피로 감소,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충격흡수, 관절보호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육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열탐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E-MAT

블랙

36.5X 25 inch

~~\$176~~ **\$80** +Tax

목사님!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미끄럼 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NEW SUPER SAFE MAT

녹색

36.5 X 24.5 inch

~~\$100~~ **\$50** +Tax

SUPER SAFE MAT

파랑

대 35.5 X 23.5 inch ~~\$100~~ **\$50** +Tax

소 31.5 X 15.75 inch ~~\$80~~ **\$40** +Tax



소중한 분들을 위한 따뜻한 선물

[연말연시 건강지킴이 귀생당]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귀한분들을 위한 건강지킴이 - 귀생당

한 해 동안 귀생당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연말연시 귀생당 건강지킴이로 소중한 분들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 보세요!

Special Price



귀생당 당간신구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 기능을 강화해서 당뇨와 합병증으로부터 해방 되십시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강력한 면역시스템 활성화로 항종양, 항궤양, 항바이러스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아이눈아이

피로한 눈, 노안,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눈질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드링크

후코이단 드링크 한 병당 함량을 5400mg으로 높여 인체에 더 빠르게 흡수되고 효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동의비

허준의 동의보감의 비방으로 6년근 홍삼과 녹용, 지황등 20여가지 신비의 약초가 한 알에 모두 함축되었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100% 진생프레소

오로지 6년근 홍삼만을 진하게 담아 면역력증진, 피로회복, 당뇨개선, 동맥경화, 황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경옥고 홍력소

6년근 홍삼에 경옥고가 더해져 면역력을 키워 떨어진 체력을 회복시키고 골다공증, 기억력을 회복해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글루코사민

천연 콘드로이친의 상어연골과 지느러미로 만들어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각종 관절염에 탁월하고 위장에 부담없는 글루코사민입니다.



www.kiseidousa.com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384.3333 / 800.909.0001

LA 씨티 교회와 영생교회 합병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모세 목사,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

LA 씨티교회(씨니 김 목사)와 영생교회가(김재연 목사) 지난 14일 주일 오전 11시 영생교회 본당에서 감격스러운 합병 감사 예배를 드리고 두 교회가 연합해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전파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김재연 목사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LA씨티교회와 영생교회의 통합예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은혜다”라며 이제껏 교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LA씨티교회 성도들과 영생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위로하고싶다. 두 교회가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씨니 김 목사는 “나는 지난 10년간 행복한 목회를 했고, 행복한 목사였다. 나의 멘토이신 김재연 목사님과 지금껏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성도들과 함께 영생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다”라고 말했다.

씨니 김 목사는 “두 교회가 합병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이 확장의 의미는 성도들의 주의 나라를 위한 파송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라며 두 교회의 통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임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로를 뜨겁게 안아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김재연 목사인 인도로 최종배 장로의 대표기도 후에 전



LA씨티교회와 영생교회가지난 14일(주일) 11시에 영생교회에서 합병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모세 목사(오렌지힐스 한인교회, LHPD 경찰 채플린)가 미가 6:6-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모세 목사는 “크리스천은 하나

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모두 바치면 잘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삶을 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예배는 성중현 목사(한국백석대 교수)의 축도로 마쳤다.

조셉 리 기자

강훈 기자의 교회 탐방기

중국 선교에 힘쓰는 예은 장로 교회

예은 장로 교회(곽건섭 목사)는 30 수년간을 중국 선교에 힘쓰는 교회다. 매월 드리는 선교 예배를 통해서 전 성도들이 중국 선교에 동참한다. 곽건섭 목사와 예은교회는 중국에 80여 개 교회를 품고 매일 기도한다. 이런 점에서 예은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중국에 세운 신학교

(올림픽 성서대학)은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다.

곽건섭 목사는 중국 선교사로 가려다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므로 예은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교회다. 곽 목사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일 년에 두 번씩 중국을 방문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선교적

프로그램과 목회자 및 신학생을 한 주간 정도 양육하는 여행이다. 준비나 진행 과정이 보통이 아니다. 이 일을 수십년간 쉬지 않고 감당했다.

곽 목사 부부는 물론 온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주역이다. 야드 세일도 하고, 펀돈을 모아 중국의 생

명을 살리고 현지 목회자를 섬긴다. 최근에 큰 병에 걸린 현지 사역자를 위해 온 성도가 힘을 모아 헌금했다.

예배가 선교적 예배다. 찬양과 메시지에 선교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다. 담임 목사와 두 사람의 부목사 그리고 두 사람의 협동 목사들이 전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다.

곽건섭 목사의 메시지는 언제나 명쾌하다. 성도들에게 감동을 나누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회자의 눈물이 설교에 담겨 있다. 대학시절부터 종교음악을 전공한 곽 목사는 찬송가 해설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다. 찬송가 해설로 마무리하는 곽 목사의 설교는 은혜로웠고 성도들은 아멘과 눈물로 응답했다.



강훈 기자 곽건섭 목사. ©예은장로교회



중국 선교를 가려던 곽건섭 목사가 개척한 예은장로교회(곽건섭 목사)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교회이다.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싱싱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Proverbs318Law.com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무료 상담** **(213)210-3651**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Dlee@proverbs318law.com**

美 목회자 53% “사임 고려해본 적 있다”



©Benjamin Brunner/ Unsplash.com

2020년 이후 미국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이유로 목회직을 그만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고 ‘하트포드 신학대학교 종교연구소’(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n Research)가 최근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지난 11일 대규모 프로젝트 ‘교회에 대한 팬데믹 영향 탐색(EPIC)’의 일환인 ‘나는 항상 지쳐 있다 - 늘어나는 성직자 불만에 기여하는 요인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3년 가을에 전국의 종교 지도자 1,700명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전 EPIC 조사에서 성직자 및 교인들이 제공한 응답과 비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을 기준으로 종교 지도자의 53%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2020년 이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44%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2020년 이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목회자의 평균 나이는 59세, 지도자로서의 경력 기간은 중간값으로 7년이었다. 또한 목회자들은 80%의 확률로 백인이며 남성이었다. 전임 목회자의 비율은 약 75%이며, 그 중 60%는 팀의 일원이 아닌 단독 목회를 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주중에 하루를 쉰다고 보고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안식년을 보낸 목회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약 3명 중 1명은 목회 사역 외에 유급 일자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시간제 목회

자들 사이에서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목회자의 4분의 1 이상이 부가적인 일자리가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진은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는 교인들의 중간 비율이 팬데믹 이후 반등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낮다고 말했다. 팬데믹 초기에는 정규 교회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40%에서 15%로 감소했다. 또한 현재 교회의 35%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자료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교회 내에서 갈등이 심하거나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려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교회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변화를 꺼리거나, 교회의 활기가 감소하고, 참석자 수가 50명이나 그 이하로 줄어든 경우였다.

연령별로는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와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더 자주 고려했다. 연구진은 “이는 은퇴가 가까워진 베이비붐 세대와 아직 경력 초기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이해할 만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흑인 목회자들은 다른 인종의 목회자들보다 교회를 옮길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으며, 여성 목회자들이 남성보다 사역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 목회자들이 더 열악한 교회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하버드대 유대인 학생들, “학교 측이 반유대주의 방치” 소송



하버드대학교 전경. ©pixabay

하버드대학교가 반유대주의 시위를 허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했다며, 유대인 출신 하버드생들이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유대인 출신 학생 6명은 10일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학생 시위대와 교직원들을 처벌하지 않아 우리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피해를 당했다”며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에 대학 측을 고소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교내 학생 반유대주의 시위를 허용하고, 강의실에서 교수진이 반유대주의에 반대 목소리를 낸 학생을 위협한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버드대가 인종과 피부색,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고, 자체적인 차별금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버드 내에서는 반유대주의 확산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상태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전 총장은 반유대주의 논란, 논문 표절 등으로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달 초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대학 측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은 하버드대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루이스 D. 브렌다이스 센터와 교육 공정성을 위한 유대계 미국인들(JAFE) 등 2개 유대인 단체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이 대학 로스쿨을 상대로 대학 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일요일만) 오전 8시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D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수요일 중보기도회 오전 9: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 한국교회 오전 9:00
주일 4부 오후 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세대에 오전 6:3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이기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박은성**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서사라**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강지원**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후 2: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11:00 **신승훈**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리타노 오후 5:0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김 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영광교회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새해 새 아침



2024년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가슴으로 읽는 성경 - 마태복음, 제자 되기 (3)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네 여인들



김영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예수님의 계보에는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쌍둥이 아들을 낳아준 다말, 예리고의 성벽 위에 살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룓(모압 족속은 룓의 큰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낳아준 아들 모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고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밧세바, 네 여인 모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흠결을 지니고 있다.

왜 마태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들의 이름만을 기록했을까? 성경 학자 윌리엄 바클리는 세 가지 의미를 짚어냈다.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

졌다. 둘째로, 예수님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장벽이 무너졌다. 셋째로, 예수님 때문에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 자신이 세리로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철저히 거절당했던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이 여인들에 대한 감정이 특별했을 것이다.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정부가 일정한 지역에 부과한 세금을 미리 대납하고 일 년 내내 제한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샀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창녀처럼 취급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 마태는 잔치를 배설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친구라야 죄인들뿐이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참여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

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9:12-13).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맞는 말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의 죄와 악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도할 기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늘 죄인들 곁에 계셨음을 잊지 말자.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신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왕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요셉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요셉은 거듭 숙고한 후에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처녀에게 애를 들어서게 해놓고 내버렸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는 감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려고 기회를 찾고 있을 때에 천사가 꿈에 요셉을 찾아왔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

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1:20-21).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익은 이름이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또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여호와와의 구원을 갈망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주었다.

왕이 자기 백성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왕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왕들은 우민정책(愚民政策)으로 백성들을 죄의 소굴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들은 술과 성(性)과 폭력이 난무한 사회생활을 조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세상에 이런 왕도 있을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마저도 생소하기 짝이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강준민 칼럼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보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퇴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출애굽 했던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퇴보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퇴보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히 10:38). 믿음은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히 10:39).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원래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비전을 보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눅 13:19). 작은 것을 통해 아름다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작은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미국 대학 역사상 가장 탁월한 코치 중의 하나로 알려진 존 우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바꿔 나가라. 결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내일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큰 것을 얻게 된다. 크고 빠르게 변화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라. 그것만이 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닷물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물 한 방울이 없으면 그만큼 바닷물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큰 목표를 작게 나누어 실행에 옮기십시오. 큰 목표를 신속하게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큰 목표를 작게 나누어 실행하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축적되면 마침내 큰 목표가 성취됩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작은 반복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로버트 마우어는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일의 반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위대한 행동이란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작은 가능성에 도전하십시오. 작은 가능성 속에 거대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을 반복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알프레드 노벨은 “내가 가진 아이디어 1천 개 가운데 딱 하나만 성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작은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절망을 포기하고 희망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넷째, “한 번 더”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저는 꿈을 성취하기 직전이 가장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도전했을 때 닫힌 문은 열리고, 새 길이 열렸습니다.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모두가 멈추는 곳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모두가 연습과 훈련을 멈출 때 조금 더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도, 작은 습관, 작은 몰입, 작은 미소, 작은 섬김, 작은 격려가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아름다운 성취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타주이사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해외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송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미주 순회연주

66년 전통의 송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합창단이 미국 내 6개의 교회를 방문하여 'Hallelujah' 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송실대학교 남가주동문회가 주관하고 새누리교회에서 후원하는 연주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장소: 남가주 새누리 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 연주 내용: Allelujah, A little Jazz Mass, 마중, 바람은 남풍, Halleluha 등 다수의 곡
 - 문의: 송실대학교 남가주동문회
ssusca@outlook.com / (213)327-4675, (818)669-8044
 - 일시: 1월 20일(토) 오후 3:00
- * 본 연주회에는 송실 동문 및 교회 성도가 아닌 누구라도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송실대학교 남가주동문회

보험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험이 필요할 때와 정직한 Agent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현혹되어 잘 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실수는 범하지 마시고
올바른 **Agent**와 **Insurance**를 찾으십시오!
저희는 최고의 **파머스 보험**과 Service 그리고 정직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Kenneth Lee

Lic. #0809178

213-368-2950

3455 Wilshire Blvd. #465., LA,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9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4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LA 323.733.8814 OC 714.522.8818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합함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 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합함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 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마가교회 채동선 전도사 별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마가교회) 채동선 전도사가 1월 15일 오전 4시 58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향년 62세.

채동선 전도사는 그동안 위암으로 투병해왔으며, 최근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도사는, 2001년 LA에 마가교회를 개척하여 출석교인 수를 500명으로 성장시킨 목회자로, 복음의 본질과 핵심, 우리 영혼의 상황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한 설교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교회 공간을 여러 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며 교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등 새로운

행보를 걸어왔다.

몽골 교회, 히스패닉교회, 선교단체, 문화예술 공간, 소극장, 영어 시민권 가르치는 곳, 장애인교회, 무료 한의사 진료소 등 20개 가까이 되는 단체들에게 4년간 무료로 제공하며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새로운 교회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채동선 전도사는 총신에서 헌법과 교회사를 가르치며 여러 교회 분쟁을 중재한 채기은 목사(기독신보 주필)의 손자이며, 일제 치하 신사참배를 거부한 채정민 목사의



마가교회 채동선 전도사
증순으로 알려져 있다. 장례 일정 및 예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626-786-1814 (마가교회).
토마스 맹 기자

미주 밀알선교단 105명에 장학기금 전달



미주밀알선교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 15일(월) 오전 11시 Buena Park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담임목사)에서 개최됐다. ©미주밀알선교단 제공

미주밀알선교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 15일(월) 오전 11시 Buena Park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담임목사)에서 개최됐다.

이중희 남가주밀알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밀알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어 영상 상영과 이준우 강남대, 풀러신학

사 창조에 도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위한 유익한 일을 하라."고 장학생들을 격려, 축복했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고, 장학생 Daniel Kim 형제의 특송과 이중희 남가주밀알 단장의 감사의 말씀, 그리고 김성남 목사(부에나파크교회 담임)와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담임)의 격려사에 이어 이영선 미주밀알 이사장 겸 미주복음방송 사장의 축도로 2024년도 밀알 장학금 수여식이 모두 막을 내렸다.

이날 미주장애인장학생 9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33명(James Worldwide, Moon Foundation 장학생 포함)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C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과테말라, 볼리비아, 멕시코) 3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105명에게 \$136,200의 장학기금이 전달되었다. 김민선 기자

사우스베이 목사회 신년 감사 예배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우준 목사)가 지난 10일(수) 오전 8시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우스베이목사회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우준 목사)가 지난 10일(수) 오전 8시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신년 감사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우준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안병권 목사(가나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김우준 목사가 설교 했다. 김우준 목사는 "나의 안에 거하

라"(요한복음15장 5절-7절)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컨대 예수님은 가지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면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학 시절에 전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간증을 전해 참여한 회원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이어서 합심 기도순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지역 복음화를 교회의 하나님 뉘를 위하여 *각 교회가 협력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됐다.

한편 이 예배를 주최한 토렌스조은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였고, 나누음 목사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참가자들에게 과일과 화분을 증정하였다. 김민선 기자

그레이스 유 시의원 후보 당선 기원 예배



그레이스 유 후보(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출마)
LA시의회 10 지구 시의원에 출마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 당선 기

원 예배가 지난 11일 그레이스 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남가주교협 지도자들은 그레이스 유 후보의 당선을 기도하면서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3월 5일 예비 선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인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투표를 당부했다. 우편투표는 오는 2월 초부터 시작된다.

예배는 류당열 목사의 사회로 김인수 목사(전 미주장신대 총장)가 "문제의 해결"(누가복음 8:27, 35, 39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이날 담사

에서 "남가주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LA 10지구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저의 승리를 위해 해주신 기도에 많은 힘을 얻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한인들의 유권자들의 등록 및 투표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주류 사회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LA 지역 노숙자 문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토마스 맹 기자

2024 중·고자녀를 위한 정체성 회복 여름캠프

부모가 꼭 권하고싶은 기독교육캠프

기간 : 2024년 6월 17일(월)~7월 12일(금)까지
장소 : 한국 충남 논산 소재 벨국제아카데미
대상 : 미주 한인 2세 자녀들(\$1,700/1인)

캠/프/내/용

1. 크리스천/나의 정체성교육
2. 한국인과문화 정체성교육
3.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



상세안내는 기드온동족선교 홈페이지와 큐알코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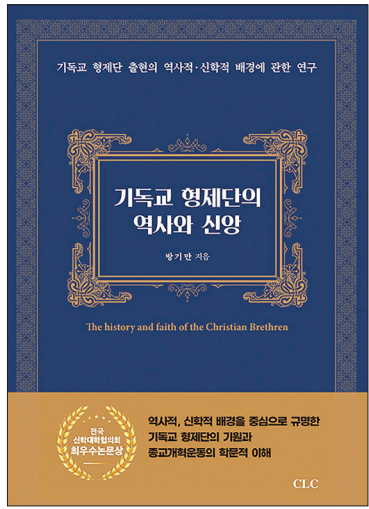
- 등록신청 : www.gideonbrothers.org
- 벨국제아카데미: <http://bellschool.or.kr>



문의 : T.(425)775-7477 gideonbrothers100@gmail.com
 협찬 : 미주기독일보

[기독교 형제단]

성경적인 교회 개혁 힘쓰는 종교개혁의 후예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신앙

방기만 | CLC | 292쪽

15,000원

조지 윌러, 허드슨 테일러, 짐 엘리엇, FF 브루스 등, 교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이 기독교형제단 출신이지만, 정작 기독교형제단의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기독교형제단은 그들이 배출한 인물들 이상으로 주목할만한 교단이기에도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은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종교개혁의 후예이자 '자유교회 전통'의 일원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평교회는 1965년 미국과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뿌린 복음이 낳은 열매로 시작됐다. 선교사는 형제단(기독교 형제단, 크리스천 브레드린(Christian Brethren)이라 불린다)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많은 사역 및 바탕에 형제단의 신학과 실천이 깔려 있다.

어렸을 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보였던 교회가 자라면서 친구들이 전해주는 교회 모습과 달라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납득시켜야 할지 고민할 때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담임목사가 있어야 하

지만, 우리에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정도로 막강한 독단의 리더십이 아니라 여러 장르로 구성된 질서와 평등이 균형 잡힌 리더십이 존재했고, 매 주 사도 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타 교회와 달리 우리는 주의 만찬을 매 주 행하였다.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등 주요 교리가 개혁신학과 거의 닮아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노화에 가입된 것이 아니었고,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가진 교회론이 성경과 더욱 가깝다는 것을 알았지만 많은 교회가 형식적으로 갖춘 교회 체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 힘들었다. 현재 200개 넘는 기독교 형제단 교회가 한국에 있지만, 전체 기독교와 여러 교단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지극히 적은 무리다.

보통 소수가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는 교만과 독선이다. 종교개혁 시대 오직 성경을 주창하며 거대한 가톨릭 교회를 떠난 소수의 개혁 교회도 같은 범주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었다. '오직 우리만 옳다'고 여기는 태도다. 오직 우리만 사도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초대 교회를 계승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통해 입증되는 사도적 가르침에서 떠난 교회는 교회로서 빛을 잃고 맛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분리된 것이다).

하지만 비본질적 진리에 관하여 독선적 태도를 가지고 오직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관하여 자기 방식만을 하나님이 승인한 유일한 방식이라고 고집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교회를 이단처럼 정죄하고 잘라내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소수 기독교 분파에서 자주 발견한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유평교회를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셨다. 우리는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거듭난 신자를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기뻐했고 교제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를 소개하고 나아가 변증할 합리적 방법을 찾는데 오랜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방기만 목사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소

개할 방법을 찾았다. 방기만 목사는 기독교 형제단 소속 서정주 교회 담임목사이자 기독교 형제단 교육 기관인 그리스도인 훈련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이다.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번에 책으로 낸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신앙>은 바로 2022년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최우수논문상을 받은 내용이다.

논문 지도교수인 남병두 박사(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는 이 책을 추천하면서 7가지 책의 가치를 소개한다. ①기독교 형제단 태동의 역사를 다룬 연구 결과물의 희귀성 ②기독교 형제단의 신학을 역사적으로 밝힌 특수성 ③기독교 형제단의 역사를 자유교회 전통과 연결짓는 독특성 ④형제단 기원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통합성 ⑤16세기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17세기 영국 상황을 통해 기독교 형제단의 토양을 파악한 포용성 ⑥전체적으로 기독교 형제단 역사를 간명하게 잘 풀어 정리한 명료성 ⑦허드슨 테일러가 기독교 형제단 출신이고 그의 믿음 선교(Faith Missions)가 기독교 형제단 일꾼인 조지 윌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독창성.

쉽게 말하면 이 책은 기독교 형제단이 종교개혁의 후예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복수 리더십과 만찬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예수께서 명하신 지상 대명령에 따라 거듭난 자를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주가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구성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물론 기독교 형제단의 기원과 발흥, 성장과 분열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고집과 독선을 만나고 비인격적 논쟁과 불필요한 단절을 발견한다. 하지만 모든 교단이 같은 진통을 겪어왔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최초의 순수한 개혁의 정신과 올바른 방향성을 되찾는 것이다.

교회는 항상 개혁이 요구된다. 성경에서 멀어진 교리를 바로잡고, 성경이 요구하는 실천의 범주를 벗어난 형식을 뜯어고쳐야 한다. 기독교 형제단의 시작은 바로 그런 개혁 정신에서 비롯됐고, 지



▲@togetherwearebrethren.com.au

금도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독교 형제단에 관한 책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 불편하고 민망했다. 하지만 방기만 목사의 책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신앙>을 통해 거의 처음으로 '우리도 너희와 같다'는 음성을 들은 것 같다(정인택 목사의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도 좋았다, 나침반, 2019).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복음을 전하며,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우리도 모든 교단의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며, 구체적인 형식이나 예전, 실천 방식이 조

금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다. 우리는 교단과 상관없이 거듭난 신자를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영원을 소망한다.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한다.

여기 우리를 소개하는 역사적, 신앙적·학문적 책이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형제자매로 교제하며 각자 가진 은사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믿음의 길을 동행하기를 소망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이후온날부터 네게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2024 감동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일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0%
APR Financing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7,500 Lease Cash Availabl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L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기독일보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교회 (마11:28)
상급 받게 하는 교회 (계22:12)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마24:14)



예배시간 안내

- 주일 1부 오전 7:20
- 주일 2부 오전 9:10
- 주일 3부 오전 11:20
- 주일 4부(대학/청년부) 오전 2:00
- EM(영어성인) 주일 오전 9:00, 11:20
-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 저녁 7:30
- 특별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찬양 5:15)
- 토 오전 6:00 (찬양 5:45)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I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08:00(주 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럴드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럴드	오후 04:30(화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CBSTV CH 20.12	오전 09:0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ISTV 미국지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9:0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5:30(금요일)
미주특급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Radio Seoul AM 1650	오전 06:3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신승훈 담임목사

예배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3부예배 오후 1:00
- 라티노 오후 5:00
- GCEM 오후 1:00
-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24년으로 창립 25주년을 맞게된 주님의 영광교회는 LA다운타운, 그랜드와 워싱턴이 만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구원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제자되기를 힘쓰며, 2세가 잘되도록, 또한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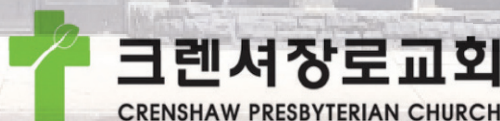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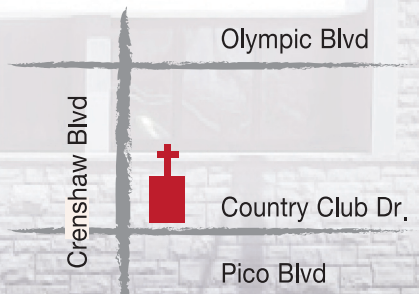
크렌셔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한현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1060 Crenshaw Bl. LA, CA 90019
213-407-1600





B T S
S O L A R
D E S I G 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까지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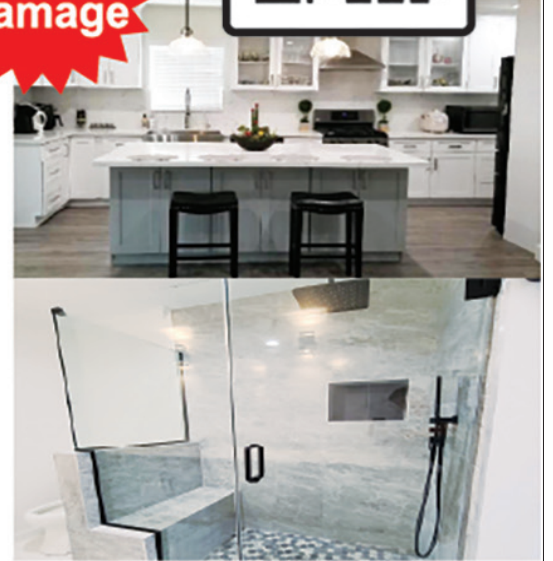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